美·英 언론 "트럼프 지금 동맹국 비난할 땐가"

"韓 대북정책 유화적" 트위터
NYT·가디언 등 "이해 불가"
文대통령과 통화 불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전략적 실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중요한 핵실험을 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미국에 적대적이고 위험하다"며 "내가 한국에 말했듯,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는 물론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동맹국을 겨냥한 부적절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당하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대북 한미 공조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NYT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비판은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 미국의 대북 '압박과 관여' 접근을 적극 지지해왔고,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한 어떤 것도 유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WP는 이번 트윗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 시사 등 한미 간 정치적, 경제적 동맹 관계를 약화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존 들루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WP에 "트럼프가 중국보다 한국을 더 공격적으로 추궁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들루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수동공격적'(passive-aggressive)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앞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섰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들(북한)과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트럼프는 이를 불만스러워하는 것으로 들린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국에 말했듯이"라는 표현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 정부를 공격했다고 해석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을 통해 한미 간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관계를 소원하게 만듦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美 국방 "트럼프, 군사옵션 논의" 제임스 매티스(왼쪽)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백악관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괌을 포함한 미국의 영토,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각각의 군사옵션을 일일이 보고받기를 원했다"고 밝혀, 미국이 군사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논의했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군사 충돌만은 피해야"…일본서 고개 드는 대북 대화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감행 이후 해외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하며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베 총리는 3일 늦은 밤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례 없이 강력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으며 푸틴 대통령에게는 "국제사회 전체가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새로 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진전을 이룬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도쿄신문은 4일자 '북한의 핵, 제재와 교섭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대화, 교섭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라며 "대화가 없으면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대립이 더 깊어져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핵개발을 막고 국제사회의 경제 교류를 촉진시킨 이란 핵합의의 교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외교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의견 교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대화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으로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며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이 현실과 가까워지면서 한반도의 군사 충돌이 일본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에서 "동북아시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군사충돌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악몽을 막기 위해 각국이 온힘을 다해 위기를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한 뒤 기존의 6자 협의를 활용해 다국간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 신문인 산케이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석유 수출 금지는 물론 북한의 금융 거래를 멈출 제재를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니혼게이자이는 "유엔 안보리는 석유금수를 새로 제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지방 제도·귀족 서열 정비

98 태종의 인척 고사렴

고사렴(高士廉, 575-647)은 발해 수현 출신으로 자는 사렴이다. 북제 청하왕 고악의 손자다. 당태종 정관치세에 기여한 공으로 능연각 24인으로 선정되었다.

젊어서부터 문학과 역사에 조예가 깊었으며 문장력이 뛰어났다고 평가받았다. 누이가 돌궐 정책을 총괄한 장손성에게 시집가 그의 자손인 태종비 장손황후, 장손무기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이복형제인 장손안업은 동생인 장손황후와 장손무기를 심하게 구박했다. 그는 질녀인 장손황후를 직접 보살펴 이세민에게 출가시켰다. 수나라에서 치예랑, 주연주부, 교지태수를 지냈고 622년 당 고조 이연에게 귀순했다. 이후 진왕 이세민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황태자 건성파와 세민파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형 건성과 동생 원길이 한편이 되어 세민을 압박했다. 두건덕, 왕세충을 물리친 공으로 세민이 천책상장(天策上將)이 되자 양측의 대립은 도를 넘어섰다. 나날이 커가는 세민의 위세에 위협을 느낀 태자파가 현무문에서 세민을 치려했지만 역습을 당해 건성과 원길이 죽임을 당했다. 현무문의 정변으로 세민이 권력을 잡았다. 이세민은 "형제간에 서로 해치는 것은 고금에서 가장 큰 죄악이다"며 싸움을 극력 피했으나 심복인 장손무기, 고사렴, 위지경덕 등이 밤낮으로 태자파를 공격할 것을 주청했던 것이다.

황제로 취임한 세민은 고사렴을 우서자로 삼았다. 이어 시중으로 삼았다. 태종 초기 동돌궐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되었다. 돌궐의 힐리가한이 백만의 군사를 이끌고 위수까지 침공했다. 태종은 직접 현무문을 나서 고사렴, 방현령 등과 말을 타고 위수로 나가서 힐리가한에게 약속을 어긴 것을 크게 책망했다. 힐리가한은 당의 군용이 매우 강성한 것을 보고 겁이나 싸움을 그만두고 철병했다. 정관 원년(627년)에는 호북성 안륙시에 해당하는 안주 대도독이 되었다. 익주대도독부장사가 되어 촉 지방의 행정을 담당했다. 제도를 고치고 풍속을 바로잡아 당의 통치가 아래까지 미치도록 세심히 배려했다. 관개시설을 정비해 장마 등으로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부상서가 되어서는 위징, 잠문본, 영호덕분 등과 함께 대당씨족지(大唐氏族志)를 편찬하였다. 이로서 당나라 귀족과 문벌 등의 서열과 위계가 분명히 정해졌다. 293개의 성에 1651개의 집안이 포함되었다. 우복야가 되었고 허국공에 봉해졌다.

642년 장손무기, 방현령, 두여회, 위징 등과 함께 능연각 24인의 한명으로 선정되었다. 643년에는 우복야를 그만두고 동문하중서삼품으로 정사에 계속 참여하였다. 태종은 중신들의 인물평을 하면서 "옛날과 지금의 일들을 섭렵하고 있고, 심술(心術)이 분명하게 통달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절개를 고치지 아니하며 관직을 가지고서도 분당을 만들지 아니하지만 부족한 것을 뼈있게 간언한다"며 고사렴의 학문과 기개를 크게 칭찬하였다.

645년 태종이 영류왕을 죽이고 실권을 장악한 고구려의 연개소문을 치기 위해 요동 정벌에 나섰다. 개부의 동삼사인 고사렴에게 태자태부의 업무를 총괄해 기밀업무와 함께 새롭게 황태자가 된 진왕 이치를 보필토록 하였다. 진왕이 고사렴에게 집무할 수 있는 책상을 만들어 하사했지만 굳게 사양했다. 그의 인품이 이토록 강직하고 겸손했다. 647년 정월 그의 병이 위중해 태종이 문병했는데 며칠 후 세상을 하직했다. 병에서 쾌유한지 얼마되지 않은 태종이 장례식에 가려하자 방현령이 이를 말렸다. 태종은 "고공은 다만 임금과 신하일 뿐만 아니라 옛날 친구이고 인척인데 어찌하여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곡을 하지 않을 수가 있소."라며 시신들을 인솔해 흥인문으로 나아갔다. 황상의 건강을 우려한 장손무기가 눈물을 흘리며 반대하자 궁으로 돌아와 곡을 하였는데 눈물이 마치 비오는 것처럼 흘러내렸다고 한다. 영구가 산소로 향하는 것을 보고는 서북루에 올라 통곡하였다. 이처럼 태종과 고사렴의 관계는 깊고도 깊었다. 태종시대를 위대한 군신관계의 시대라고 후세 사가들이 칭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고사렴은 황제의 신임을 한껏 받은 복 많은 신하였다.

부안 숙박시설(모텔) 매매·임대

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

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

감정가 **16억** → 매매가 **10억**

(융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즉시임대가능★

직매 010-7384-7800

수익성상가매매

◈ 수기동 상가 (6층) 45평
→ 5,000만 리모델링 완비
→ 즉시입주, 시비무료, 임대가능
매가 1억6천 → 9천(융5천)

◈ 상무지구 상가(4층) 45평
→ 케이원상가
→ (보2천, 월130만, 융7천)
매가 2억5천 → 1억9천

◈ 상무지구 상가(6층) 19평
→ 롯데마트 앞
→ (보500만, 월40만, 융2,500만)
매가 1억 → 7천5백

◈ 경기 평택시 토지 매입할분
→ 전원주택, 농지 투자, 개발
→ 평당 130만원

◈ 서울 용산구 청파동상가
→ 서울역 3분
→ 상가 (오피스텔2개)
보600, 월70만 / 매가1억2천

010-6670-9800

영 광 주 택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깨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

법률경매 ㈜대신경매
노후대비 최적합

1) 상무지구 치평동 상가 1층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천
2) 동구 금남로 충장로 코너(15층 상가건물)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75억(특A급)
3) 북구 삼각동 상가건물 (4층)
병원, 요양병원 적합
감정가 189억 → 최저가 85억
4) 상무지구 치평동 지하상가 (교회, 기타적합)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5) 상무지구 치평동 4층 상가코너 (병원)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10억5천
6)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 → 최저가 17억
7) 충남 홍성 상가건물 (주유소, 모텔, 식당종합건물)
감정가 55억 → 최저가 13억
8) 전주시 완산구 상가건물 (노후대비상가)
감정가 13억5천 → 최저가 9억4천

특수물건, 절반물건, 상가.토지, NPL전문

경매교육

매주월요일 개강

062-382-5500